



## 參與와 實踐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자연에 대한 保全論者와 開發論者사이의 해묵은 論爭은 그런대로 가닥이 잡힌 것같이 보여진다. “持續의 活用을 위한 持續의 保全”이라는 中庸的 結論을 導出한 것이 껍이나 印象的이다.

이제 保全(Conservation)이란 概念은 人間에 의한 生物圈의 利用이 未來를 향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開發(Development)을 컨트롤하는데서 出發해야 한다는데 大體的 合意를 이룬 셈이다.

바꾸어 말해서 生態系의 再生産, 再循環이 지속 가능한 범위안에서 自然資源을 적정하게 이용함으로써 生態系의 유지와 資源의 효율적 活用을 다같이 圖謀하자는 論理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當面한 課題는 이같은 合意와 共感帶를 최고도로 擴散하여 못사람들의 自發的 參與와 實踐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도 편리하게 사용한 각종 無機質 물건들이 도리어 우리들의 生存을 위협하는 魔物의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들은 무엇을 주저하며 망설이라...

우선 過剩消費시대를 反映하는 온갖 消費패턴을 再點檢하여 食生活은 물론 日常生活에 이르기까지 씹씹이부터 節制하고 아끼자. 특히 飽食의 世代라 할 靑少年들의 消費意識을 바로잡는 教育이 家庭과 學校와 社會에서 一貫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물론 道德教育, 人間教育의 次元에서도 眞摯하게 推進되어야 한다.

버리고 더럽히는 汚染者 群象들의 뒤를 밟아, 줍고 치우고 청소하는 외로운 少數가 바쁘게 움직이는 時代錯誤的인 分業形態(?)가 과연 언제

까지 작동될 것인가?

우리들 絕對多數가 줍고 치우고 청소하는 쪽에 連帶하여 서게 될때 버리는者 더럽히는 者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온 세상이 온통 바른 것뿐일때 굵은것 비뚤어진 것은 금방 눈에 띄게 마련이고 萬人의 눈총이 쏠릴 것임은 뻔한 理致다.

실제로 環境惡化에 의한 生物에의 영향은 어느 時日과 段階까지는 점진적이지만 알게 모르게 쌓인 것이 어느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不安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資源의 循環시스템에 逆行하는 日用品의 제조나 사용은 斷然코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自然과의 共生이란 新地球村 理念에 合致되는 文明의 利器만이 生命력을 갖도록 하자.

하늘은 푸르려야 한다. 山川도 바다도 푸르려야 한다. 싱싱하고 푸르른 大自然속에서만이 쾌적하고 質높은 文化的 삶이 創造된다.

人間이 精神的으로나 感性的으로나 함께 健全 하려면 自然의 美와 文化의 美가 調和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實로 綠色資源은 우리 人類의 永遠한 文化資源으로서 共存共榮해야 할 파트너 아니고 무엇인가.

論語에 “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自己가 바라는바 아니거든 他人에게도 베풀지 말라는 孔子의 소박한 訓戒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바라는바 아닐진대 사람뿐 아니라 自然에게도 베풀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고 그대로 實踐하여야겠다.